

사설

비판만이 능사는 아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뒤숭숭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은 당황한 기색이다.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다시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당초 대학은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인원과 수업방식에 따라 조건부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교로서도 전면 비대면 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급작스런 코로나 전개 상황이 지난 3월과 비슷한 혼란 사태를 또다시 재현해낸 것이다.

학생사회에선 이런 학교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비대면 강의, 등록금 반환, 학생 의견 수렴 요구는 모두 한 줄기로 이어져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

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두고 시정을 요구하며 등록금 반환을 주장했지만, 학교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선을 긋자 이번에는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비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빚어낸 문제가 모두에게 처음이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 또한 마찬가지다. 대학은 '뉴노멀'을 앞두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경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쌓여야 매뉴얼이 된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따라서

일부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본질은 학교의 행정적 역량 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재정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혹독한 시련은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학은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 학교의 한 해 예산을 이루는 것은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학교 사업 수익이다. 하지만 등록금은 동결된 지 오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수익도 상당 부분 감소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지출은 되레 늘었다는 게 학교 측 목소리다. 각종 인건비를 비롯해 나갈 돈은 그대로인데, 비대면 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학교의 재정위기는 핑계가 아니라 임박한 현실인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을 '대국민 팀플'이라 부른다고 한다. 전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에 협조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경희인 팀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팀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로 닥친 상황이 힘들고 당혹스럽기는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발휘하는 것도 코로나19라는 과제를 해소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네이비즘'을 쫓을 때

취재수첩

한진석 기자
1_jinsek@khu.ac.kr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있다. '네이비즘'이라는 서버 시간 조회 사이트다. 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의 서버 시간을 조회한 후,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 버튼을 누르고자 초단위로 압박하는 전자시계를 바라본다. 엄밀히 말하면 '네이비즘'이 표시하는 시각은 정확한 시각이 아니다.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학교가 관리하는 서버의 시각을 알아내는 데 있다. 학생들은 늘 학교의 시계에 맞춰 초단위로 적응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순서와 혜택, 때론 성적을 부여받는다. 이처럼 학교가 제시한 기한과 시각을 학생들이 모두 따르는 것은, 아마도 다른 구성원들 또한 그 약속을 함께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두 학기에 걸쳐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취재하면서, 생각보다 그 시계가 자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학교보다 늦은 비대면 강의 기간 발표 때문에 자취방 계약을 붙잡은 채 발만 동동 구르던 학생들이 있었다. 교직원들의 퇴근 시각을 잊은 것처럼 밤새도록 본부 앞에서 답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갑작스런 대면 시험 발표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없이 학교로 불러온 학생들이 있었다. 성적 공지 시간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올라오던 성적과, 매학기 제때를 지키지 못한 채 탑재되는 강의계획서는 교강사들의 시계가 학생들을 향하지 않았던 방증이다. 강의 질 향상과 강의 플랫폼 일원화를 약속한 2학기 첫날, e-campus는 서버 불안정 문제로 정해진 강의 시간을 지킬 수 없었다. 가장 빨리 학사 관련 공지를 전달해야 했던 학교의 '경희톡'은 매번 총학생회의 SNS에 그 역할을 내주었다.

이제는 비대면 강의 체제에 대비하는 과도기를 지나, 무언가 달라질 때라고 모두가 말한다. 한균태 총장 역시 서신을 통해, "위기 대응의 성패는 이전 상황으로 얼마나 복귀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 어떤 전환을 이뤄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



만평 학교의 '네이비즘'을 쫓을 때

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전환만 이루어낸다면 구성원 간의 갈등에 허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학생들만 학교의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학생들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주거문제를 고민하며 학사 공지만 바라보고 있는 학생, 학교의 답을 구하기 위해 묵묵히 서 있는 학생, 매학기 1초만큼 앞서 교실에 달고자 경쟁하는 모든 학생들의 시계에 주목해야 한다. 여태껏 학생들은 학교가 제시하는 일정을 뒤따랐을 뿐 그 중심에서 본 적이 없다. 학생들이 때론 학교에 배신감을 느끼고, 소통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

유는 여기에 맞닿아 있다.

학생들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 최근들어 학교에서도 하나 둘 답을 꺼내고 있다. 그중 등록금 반환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한 학기가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8월 3일 전에 공지하던 성적 평가 방식은 약속된 시간으로부터 2주일이 지나서야 발표되었다. 대담과 대응의 적기를 찾고 싶다면, 학생들이 현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학생들의 시간을 알아보는 '네이비즘'을 쫓고, 학교의 시계를 조정할 때가 왔다.

나를 돌아보는 눈

세시봉

김수혁 기자
sherh@khu.ac.kr



'방황하는 유대인' 이야기는 유럽에서 13세기쯤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전설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예수에게 군중 가운데 있던 어떤 이가 "걸음이 느리니 빨리 지나가라"라고 말하며 조롱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를 돌아보고 "나는 간다만 너는 여기서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 하리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은 이후 죽지 못하고 예수가 재림할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성경이나 신화만 한 당대 사료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이 전설을 오랜 세월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자.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이 인물에 관해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대개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 속 인물에게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그 인물이 타락했거나 고통받거나 몰락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인물들에게 더 강렬하게 매료되기도 한다. 그의 타락, 고통, 몰락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자신에게도 존재함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경솔한 행동으로 구세주를 모욕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사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에 섬뜩함을 느낀다면, 그가 예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 마주 본 눈의 주인은 신, 도덕관, 개인적 양심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 눈은 내 말과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자기 객관화의 눈이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얼마 전 퇴원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스스로 고통을 겪어 보셨으니, 이제 부디 자신의 행동이 유발한 타인의 고통도 살피시기를 바란다. 마음속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 보시기 바란다.

경희대학교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청솔디자인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